오프로드 특화…정통 픽업 '더 기아 타스만' 나온다

국내 계약 시작…3750만원부터 X-Pro는 최대 5000만원대 초반
최대 견인력 3.5톤 확보…최고 출력 281마력에 도하 성능 장착도

기아가 17일 첫 정통 중형 픽업 '더 기아 타스만' 계약에 돌입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.

타스만은 지난해 10월 사우디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다. 기아는 타스만의 트림명을 다이내믹, 어드벤처, 익스트림 등 3가지로 구분했다. 또 오프로드에 특화해 최저 지상고를 높이고 전용 사양을 갖춘 X-Pro 모델을 별도로 운영한다.

타스만의 가격은 최저 3750만원(다이내막 모델)으로, 어드벤처·익스트림 트림은 4000만원대이며, X-Pro는 5000만원대 초반이다.

기아는 타스만에 가솔린 2.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, 최대 토크 43.0㎏f·m의 동력성능과 리터당 8.6㎞의 복합연비를 확보했다.

타스만은 최대 3500㎏까지 견인할 수 있으며, 견인 중량에 따라 변속 패턴을 차별화하는 토우(tow) 모드로 승차감 및 변속감, 연료 소비 효율을 최적화했다.

아울러 타스만의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(바퀴 덮개) 내부 상단에 적용, 800㎜ 깊이의 개울이나 웅덩이 등을 시속 7㎞의 속도로 건널 수 있는 도하 성능도 확보했다.

타스만에 적용된 사륜구동(4WD) 시스템은 샌드, 머드, 스노우 등 터레인 모드를 갖췄다.

2열에는 동급 최초로 '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'를 적용하고, 설계 최적화를 통한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·헤드·숄더룸을 제공했다.

2열에 도어는 최대 80도까지 열 수 있고, 2열 시트 아래 29L 트레이를 마련했다.

적재 공간(베드)은 길이 1512㎜, 너비 1572㎜(휠 하우스 부분 1186㎜), 높이 540㎜로 약 1173L(유럽 기준)의 공간에 최대 700㎏을 적재할 수 있다.

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-Pro는 기본 모델보다 높은 252㎜의 최저 지상고를 갖췄으며 '올-터레인'(All-terrain) 타이어를 적용해 거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.

또 '전자식 차동기어 잠금장치(e-LD)', 산악 지형에 특화된 '락(Rock)' 모드, 차량 전방 하부 노면을 볼 수 있는 '그라운드 뷰 모니터' 등 X-Pro 전용 사양을 제공한다.

기아는 올 6월까지 출고한 고객(개인)을 대상으로 원리금 균등방식 할부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고, 올해 3월 이내 계약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계약금 쿠폰을 제공하는 '타스만 더블 케어 프로그램'을 운영한다.

기아의 첫 정통 픽업 트럭 '더 기아 타스만' 내·외관.

기아 관계자는 "레저용 차량(RV) 시장을 선도해 온 기아가 선보이는 정통 픽업 타스만은 국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"축승연 못가 아쉬워"…정의선 회장, KIA 스프링캠프 현장 깜짝 방문

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. 〈사진〉

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6일(현지시간)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인근의 '더 클럽하우스 베이스볼'을 찾아 훈련 중인 KIA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격려했다.

정 회장은 그룹 주요 경영진과 함께 설립 20주년을 맞은 모하비 주행시험장 방문 및 미국 프로골프협회(PGA) 투어 '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' 참관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.

정 회장은 선수들과 만나 "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, 현대차그룹 구성원에게 큰 기쁨이 됐다"며 "지난해 11월 축승연에 폭설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이렇게 전지 훈련장에서 직접 만나게 돼 기쁘다"고 말했다.

이어 "승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니 선수단과 스태프 모두 컨디션과 몸 관리에 힘써 달라"고 당부했다.

정 회장은 또 "모기업이 자동차 회사인 만큼 차량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보는 것도 좋겠다"며 KIA 구성원들을 17일 어바인의 기아 미국 판매법인(KUS)과 미국 디자인센터 등 사업장에 초대했다.

정 회장은 이를 위해 선수단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, 메뉴 선정까지 직접 챙겼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.

KIA 주장인 나성범은 팀을 대표해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대형 사인볼을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금호타이어, K-리그 전북현대모터스와 파트너십 연장

금호타이어가 K-리그 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와 공식 파트너십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.

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실시했다.

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시즌 전북현대모터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보드, 골대 옆 고정 보드,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.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 뒷면 하단에 금호타이어의 로고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. 또한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 등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벤츠, '메르세데스-AMG CLE 53 4MATIC+ 카브리올레' 출시

최고출력 449마력 오픈톱 모델

메르세데스-벤츠 코리아가 17일 고성능 2도어 오픈톱 모델 '메르세데스-AMG CLE 53 4 MATIC+ 카브리올레'〈사진〉를 출시한다.

이 모델은 개량된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가 장착된 3.0L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해 449마력의 최고출력과 57.1㎏f·m의 최대토크를 낸다. 여기에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 시 최대 17㎾의 힘을 더했다.

또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는 가변식 사륜구동 AMG 퍼포먼스 4MATIC+과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기능 등이 탑재됐다.

소프트톱이지만 단열 효과가 높은 다층 구조를 적용했고, 앞 유리 상단과 머리받이 뒤의 윈드 디플렉터로 외풍의 유입을 줄여 주행 쾌적감을 높였다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.

차량 앞부분은 AMG 라디에이터 그릴과 커다란 공기 흡입구를 품은 A자형 프론트 스커트 등으로 역동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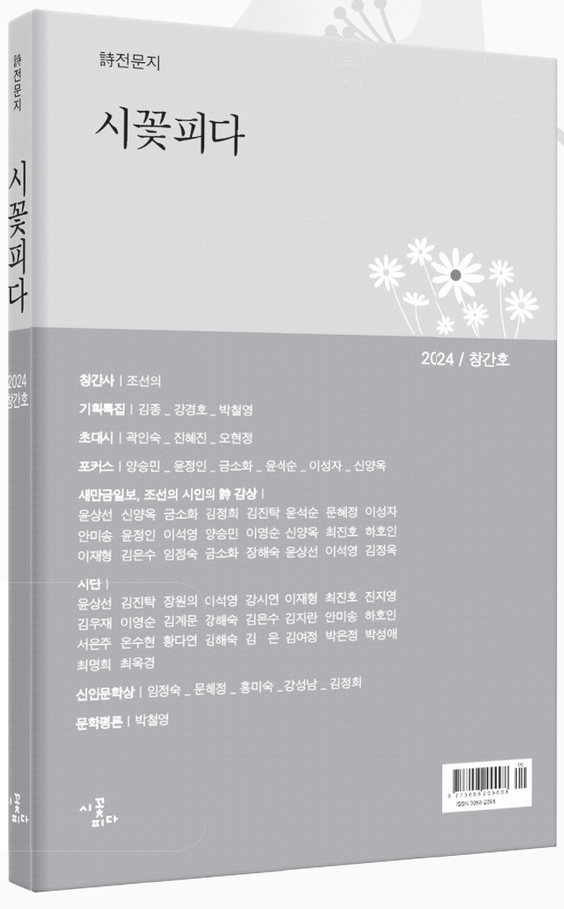
CLE 53 4MATIC+ 카브리올레는 17대 한정으로 선보이는 '그레이트 화이트 에디션' 모델과 유료 옵션을 추가한 '다크 나이트 패키지' 등으로도 제공된다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"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."

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
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.

조선의 시인
문예지 '시꽃피다' 창간

조선의 시인

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, 기독신춘문예 당선, '미션21' 신춘문예에 당선,
상상인 작품상, 송순문학상, 김만중문학상, 거제문학상,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.
『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』『빛을 소환하다』『꽃 향기의 밀서』,『꽃으로 오는 소리』 등 발간.
〈시꽃피다〉 광주 시창작 강사, 〈시꽃피다〉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,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,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